"더 늙기 전 중년 로맨스 영화 출연하고 싶어"

'그대 이름은 장미' 16일 개봉 …배우 유호정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영화에

배우 유호정(50)이 오는 16일 개봉하는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 (조석현 감독)로 돌아왔다. 스크린 복귀는 '써니' (2011) 이후 8년 만이다. 자식을 위해 꿈을 접은 한 여성의 굴곡 많은 삶을 따라가는 작품이다. 한때는 장미처럼 아름답고 찬란했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위한 헌사 같은 영화다.

8일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유호정은 "최근 영화에 서 보기 힘든 모성애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출연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괴당한 딸을 둔 엄마, 성폭행당한 딸을 둔 엄마 같은 강한 소재의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왔어요. 배우가 아픈 역할을 하면 정말 아프고, 지치고 힘든 역 할을 하면 정말 지치거든요. 그런 연기에 제가 몇 개월 동안 빠져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소 소하지만 따뜻한 영화를 찾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네 요."

영화는 강원도 해변에서 민박집을 하는 중년 여성 홍 장미(유호정 분)와 그의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순 철(오정세)이 오랜만에 해후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 에서 시작한다.

1970년대 낮에는 공장에서 재봉틀(미싱)을 돌리며 가수의 꿈을 키우던 젊은 홍장미(하연수)는 우연히 레 코드 사장 눈에 띄어 순철(최우식)과 함께 남녀 듀엣 그룹 데뷔를 앞둔다. 그러나 남자친구 명환(이원근)이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장미는 싱글맘이 돼 밤업소를 전전하며 생업 전선에 뛰어든다.

전반부가 70년대 복고 감성을 바탕으로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한편의 뮤지컬 영화 같다면, 90년대부터는 홍 장미와 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유호정이 연기한 중년의 홍장미는 녹즙기를 팔며 곰 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고등학생 딸 현아(채수빈)와 함께 산다. 둘은 사소한 일로 늘 티격태격하지만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다. 그런 모녀 앞에 명환(박성 웅)이 나타나면서 딸은 몰랐던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된

유호정은 "제가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고, 이 작품 에서 엄마 역할을 맡았지만 사실은 딸이 돼서 연기한 것 "지치고 힘든 사람들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영화 모성애 연기 하다보니 돌아가신 엄마 많이 생각나"

같다"고 회상했다. 촬영 내내 15년 전 돌아가신 엄마를 많이 떠올렸기 때문이다.

"홍장미의 삶이 실제 우리 엄마와 닮았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이후부터 저와 여동생을 홀로 키우셨죠. 엄마 는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버릇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사춘기 때는 그런 엄마를 많이 원망했죠. 그런데 생각 해보니 저 역시 엄마에게 살가운 딸은 아니었어요. 엄 마가 저에게 의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무뚝뚝하게 대 했죠. 그게 후회스러워요."

영화에는 홍수가 나 장미네 지하방에 물이 들이닥치 는 장면이 나온다. 유호정은 "중학교 1학년 때 실제로 방에 물이 차서 대피하느라 학교도 못간 적이 있다"면 서 "그때 엄마는 저와 동생을 옆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로 대피시키고, 혼자 가재도구 등을 챙겨서 집 옥상 텐 트에서 하룻밤을 지내셨다"고 떠올렸다.

유호정의 자전적 경험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영화 속에서 애절한 모성애로 표현됐다. 그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에 부끄럽지 않은 영화로 완성돼 기쁘다"고 했

이 영화는 그가 주연한 영화 '써니'를 떠올리게도 한

유호정은 "저도 처음에는 그런 점을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써니'는 우연히 친구를 만나 과거 찬란했던 시 절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지만, 이 작품은 홍장 미의 인생을 통해 모성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 강조했다.

1989년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유호정 은 두 번째 출연작인 '옛날의 금잔디' (1991)에서 이재 룡을 만나 1995년 결혼했다. 현재 18살 아들과 15살 딸 을 두고 있다. 유호정은 연기자로서 롱런할 수 있었던 공을 가족에게 돌렸다.

"남편을 만날 수 있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 를 낳고서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했죠. 남편이 일 할 때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제가 일을 할 때는 남편



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치 않고 일을 할 수 있 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요즘은 나이가 들 어서인지 중년 로맨스에 대해 그리움이 있어요. 더 늙 기 전에 영화 '파리로 가는 길'의 주인공 다이안 레인 같 은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연합뉴스 돌아온 박신양의 '조들호2' 시청률 6.7% 단숨에 월화극 1위

약 3년 만에 돌아온 KBS 2TV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첫 방송부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 면 전날 오후 10시 방송한 '동네변호사 조 들호2: 죄와 벌' 시청률은 6.1%-6.7%를 기록하며 첫 방송부터 5%를 넘으며 단숨 에 월화극 1위 자리에 올랐다.

동시간대 경쟁작이자 줄곧 월화극 1위 를 사수한 MBC TV '나쁜형사'는 5.4%-5.7%로 큰 하락 폭을 보였으며, 상승세였 던 SBS TV '복수가 돌아왔다'도 4.3%-4.8%로 주춤했다. 동시간대 1위는 여전히 KBS 1TV '가요무대'로 8.5%였다.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2019년 현재 시 점에서 시작해 3개월 전, 1년 전, 18년 전 을 부지런히 오가는 복잡한 구성을 취했지 만 집중하기 어렵지는 않았다. 현재 극한 상황에 처한 조들호(박신양 분)의 상황과 그의 과거, 만난 사람들을 훑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박신양의 원맨쇼와 후반부 등장한 고현정의 카리스 마도 반가웠다.

그러나 시청률과 별개로 시청자 반응은 다소 냉랭했다.

우선 시즌1과 같이 통속적이면서도 통 쾌한 분위기를 기대한 사람들은 전 시즌과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 박신양

영 다른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

특히 극이 종종 과장된 연출과 연기로 채워진 점이 아쉬움을 낳았다. 조들호와 그의 조력자 강만수(최승경) 간 연기 호흡 이 줄곧 코믹스럽게만 다뤄진 점은 극 무 게감을 잃게 했다.

30분 일찍 시작한 tvN '왕이 된 남자'도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첫 회 시청률이 5.7%(유료가구)를 기 록, 역대 tvN 월화극 첫방송 시청률 중 최 고 성적을 냈다.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원 작으로 한 '왕이 된 남자'는 약 2시간 분량 의 영화를 드라마화한 만큼 서사를 더 길 고 탄탄하게 쌓기 위해 초반 배경 설명에 꽤 공을 들인 모습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마이크로닷-홍수현 결별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과 배 우 홍수현(38)이 결별했다.

홍수현 소속사 콘텐츠와이 측은 8일 "홍 수현이 최근 마이크로닷과 헤어진 게 맞 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과 홍수현은 2017년 채널A 예능 '도시어부'에 함께 출연한 일을 계기 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 지난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 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이크로닷이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취를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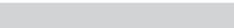
추면서 두 사람 관계도 멀어지지 않았겠느 냐는 추측이 나왔다.

홍수현 측은 한동안 결별설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이날 인정했다.

TV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세계 최고를 찾아라 스페셜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왜그래 풍상씨:커밍순(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5 붉은 달 푸른 해(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35 김신영의 TMI 언더나인틴(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 도도 2 55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40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 55 5 MBC 뉴스	00 임시정부 수립 100년 특집다큐 의렬단의 독립전쟁(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왼손잡이 아내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김산〉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05:00 왕초보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레일 그랜드캐니언〉

06:00 한국기행(재) 〈오래된, 좋은 3부 메주는 예쁘다〉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랄랄라 뿌우

09:00 엄마까투리 09:30 원더볼즈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EBS1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스튜와 된장마요 채소스틱〉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14:30 코코몽3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20:40 세계테마기행

〈신화의 땅 아틀라스 3부 대서양에 핀 화산섬〉

21:30 한국기행

〈괜찮아, 겨울이야 3부

못생겨도 맛은 좋아〉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 48년생 결과는 대동소이할 것이니 편하게 임해도 된다. 60년생 국면의 구도에 맞춰서 진행하자. 72년생 파격적 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84년생 깊이가 있다면 어떠 한 난관도 타개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60, 35



37년생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거든 가부 찬반의 입장 을 분명히 해두어야만 한다. 49년생 대롱 구멍으로 하늘 을 보려는 이치이다. 61년생 내면까지 모두 드러낼 필요 는 없도다. 73년생 유혹을 주의 하라. 85년생 가닥이 잡 히는 시점이니 집중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4,03



38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50년생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2년생 주관에 사로잡힌다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74년생 활용한다면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 86년 생 복합적 파생 효과가 크다. 행운의 숫자 : 50,90



39년생 별 의미가 없다. 51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 어야 보배다. 63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매끄러운 기저이 다. 75년생 부실한 부분은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87년생 일방적이라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 행운의 숫자: 39,52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겠다.

40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 52년생 재물이 늘어 날 수도 있는 운세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 64년생 무의식중에 넘어지거나 빗나갈 수 도 있느니라. 76년생 다음 기회를 도모하라. 88년생 취 약한 곳이 보이니 속히 보완하자. 행운의 숫자: 98,31



41년생 조용히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53 년생 넘치는 것은 절대로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65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대로 행한다면 하자가 없을 것이다. 77년생 미련을 버려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 89년생 상 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27



午

42년생 바라보고만 있어도 능히 효과가 있다. 54년생 애 로 사항이 참으로 많아질 수 있다. 66년생 힘에 부친다면 내려놓아야 맞다. 78년생 막힌 곳이 생기지만 쉽게 뚫을 수가 없어서 매우 답답하겠다. 90년생 돌발 상황이 속출 하면서 정신없겠다. 행운의 숫자: 80,65

1월 9일 (음 12월 4일 丙午)



43년생 미리서 준비해 둬라. 55년생 전혀 예상치 못 했 던 정황이 나타날 것이다. 67년생 흥망의 여부를 결정짓 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79년생 서로 맞지 않다면 오히려 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라. 91년생 주변인들로부터 행운의 숫자: 01,07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申

酉

未

44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 에 이르렀다. 56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68년 생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면 나서지 않는 것이 옳도 다. 80년생 고민거리가 해결된다. 92년생 시세가 흉흉하 니 상당한 애로가 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1,69



45년생 흉한 기운이 점점 소멸되어간다. 57년생 막연하 다면 실망감만 안겨 줄 뿐이다. 69년생 불변의 줏대가 있 어야겠다. 81년생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호 간에 이해 부 족으로 인한 오해를 낳게 된다. 93년생 과거의 잣대로 재 려한다면 모순이다. 행운의 숫자: 79,33



34년생 신용을 잃은 이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법이 다. 46년생 서로의 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 58년생 짧은 시간 동안에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70년생 뜻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이득은 미지수다. 82년생 착오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7,50



35년생 소통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배가되리라. 47년 생 자신부터 솔선수범 하자. 59년생 전혀 납득하기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니라. 71년생 이미 가닥이 잡히고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83년생 일을 키우 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13,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